●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21절 ~ 22절)

“용서라는 달콤함을 모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용서는 사랑의 마음이다. 용서가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고, 용서에 인색한 사람은 사랑이 없다는 말은 매우 근거가 있는 말이다. 용서하라,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용서는 참된 사랑이며, 너그러운 품격이다.